

“광한루에서 화합의 자리 만들자”

남원시, ‘광한루 600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 추진상황보고회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청회의실에서 ‘광한루 600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김동규 부시장과 각 분야별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광한루는 조선시대 재상 회소가 이상향을 꿈꾸었던 광통루(廣通樓)가 600년 역사를 가진 광한루로 이어진 것으로, 춘향기와 몽룡의 사랑이야기가 이를 더욱 빛나게 하였으며 오랜 풍광을 견디면서 남원의 소중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금년은 광한루 600년으로 남원시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광한루 일원에서 펼쳐지며, 8월 3일(토)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수, 기념식,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광한루 600년 기념 타복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아간에는 국악, 퓨전, 대중가수 축하공연이 성대하게 펼쳐져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4일에는 광한루에서 정유재판



남원시는 지난 21일 시청회의실에서 ‘광한루 600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남원도공의 스토리를 다룬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공연과 신관 사포 부입행사, 전통체험 등을 다채롭게 펼치고, 또한 이 기간 남원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막걸리 7080을 테마로 한 남원막걸리 축제가 요천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부시장은 “600년을 맞은 광한루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소중한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다 함께 화합하는 축하의 자리가 되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7월부터 시행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1인기준 20만 4천원 지원

순창군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연중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이 탈락된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 가구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인 1인 가구

25만원 보다 완화된 1인 가구 273만원, 재산 3억원 이하로 낮췄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1개월 이상 전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주민복지실(☎650-1297)로

문의하면 된다.

6월내에 신청하는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7월부터 매월 30일까지 1인 가구 기준 20만 4천원, 4인 가구 기준 41만5천원의 생계급여를 정액 현금으로 받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생활수준은 어렵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지원 하여 따뜻한 순창,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도2,3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로 국토정보공사 선정... 내년말까지 사업완료 예정

임실군은 이도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조사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

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

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올해까지 현지측량을 완료해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복한 순창, 귀농귀촌은 이곳으로

군, 서울서 귀농귀촌 홍보전 개최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설태송)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에 참가해 순창의 귀농정책을 알렸다.

‘귀농귀촌, 전북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최(GBE 글로벌시비전 대행)한 이번 행사는 연중 4회 열리는 중 첫 번째 행사로 전북도내 13개 시군이 참가했다.

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 양환옥 센터장과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 김민성 회장, 군 관련부서 부서장 등 10여명은 행사기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도시민 유치에 열을 올렸다.

이번 홍보전은 기존 지자체의 정책홍보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주제 강의로 진행했다. 또 시군별 소규모 그룹상담 형식을 도입해 상담객간의 자연스런 정보 교류 및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돋보였다.

지난 5월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 부문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대상을 수상한 순창군은 1:1 상담을 통해 순창군의 다양한 정책과 작물선택 및 재배방법, 농지임야 전용의 문제점 등 사례를 들어가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군산시·남원시와 함께 소규모 그룹상담을 통해 순창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최근 제작한 ‘행복한 귀농귀촌, 순창이 참 좋다’라는 홍보 팸플릿을 배부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순창군은 이번 행사에 이어 7월 26일~27일 대전, 9월 27일~28일 광주, 10월 25일~26일 서울 등에서 열리는 홍보전에도 참가해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양환옥 센터장과 김민성 회장은 “하나 된 모습으로 순창군을 홍보했으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관계자는 “귀농에 관심 있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청년실업농장, 캠프 플랫폼 건립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귀농귀촌인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고 등급

남원시가 감사원에서 주관한 2019년(2018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분야에 대한 심사 후 A(15%), B(35%), C(40%), D(10%)등급으로 구분 발표했다.

남원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 계획수립과 감사절차 준수, 감사결과 처리의 적정성, 개선요구 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등 감사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상위 15%이상에게 주어지는 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기존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및 기관별 목적에 맞는 효율적 조직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에 내실을 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박흥근 감사실장은 “자체감사 역할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바른 감사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형우 임실부군수 양파수급대책 모색

김형우 임실 부군수가 양파 수매장을 찾는 등 양파수급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김 부군수는 지난 21일 양파 수확기를 맞아 과잉생산에 따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양파 수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센터(APC) 양파 수매현장을 찾았다.

올해 임실군 양파재배면적은 115ha로 전년 대비 5%감소했다. 하지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5% 증가한 6900톤에 달하고 있다.

군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의하여 1600톤의 산지폐기와 1400톤의 계통출하계획을 세웠다.

계약물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임실농협, 오수관촌농협과 협의하여 기표함으로써, 차후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을 통한 차액보전이 지원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키로 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계통출하능가에 대해 농축산물 가격이 3년 평균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또한 군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20kg 1장에 8,000원으로 판촉행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